

보도시점 (지 면) 11.25.(월) 조간
(인터넷) 11.24.(일) 12:00

지정부터 성과창출까지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 제1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규제자유특구 운영 효율화 방안, 운영 성과 평가결과,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등 의결

정부는 15일(금)부터 22일(금)까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했다.

* 「지역특구법」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

금번 특구위원회에서는 ▲ 규제자유특구 운영 효율화 방안, ▲ 규제자유특구 2023년 운영성과 평가결과, ▲ 2024년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 ▲ 기지정 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을 심의·의결했다.

안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규제자유특구 운영 효율화 방안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19) 이후 5년이 지나 종료특구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특구 운영효율화 및 성과제고 방안을 마련하였다.

규제자유특구를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공모형과 재정지원을 수반하지 않는 비재정지원 특구로 구분하고, 재정지원 시 공모 선정을 원칙으로 함을 명확히 하였다. 비재정지원 특구의 경우 규제특례 부여 등 규제완화 중심으로 운영되며, 재정지원특구보다 약 1년 정도 절차가 단축된다. 재정지원 특구는 정부 재정지출 효율성 중대가, 비재정지원 특구는 지역의 혁신 기술을 보다 신속히 실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특구기업이 신기술을 실증하는 데 있어 민관 합동으로 규제발굴 단계부터 실증 이후까지 실증 전기간을 단계별 지원·관리하되, 기업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② '23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평가

특구별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도, 규제특례 등의 활용 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도 심의·의결하였다. 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 등에 근거하여 추진되었으며 지정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3~8차 23개 특구를 대상으로 성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대상 23개 특구 모두 정상 진행 중으로 나타났다.

③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

한편, 금년도 종료 예정인 30개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여부에 따라 특구 종료, 임시허가 부여·연장, 실증특례 연장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법령 제·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되어 종료되는 특구는 ▶세종 자율주행 특구, ▶대구 이동식협동로봇 특구, ▶충남 탄소저감건설소재 특구 등 4개 특구이다.

▶강원 액화수소산업 특구 ▶경남 5G 스마트공장 특구 ▶경북 산업융합프 특구 ▶부산 블록체인 특구 ▶울산 게놈서비스 특구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 총 7개 특구에 대해서는 규제법령 개정 또는 규제특례 지속 적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임시허가를 부여한다.

특히, 금번 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자율주행 실외로봇의 도시공원 출입을 허용하는 세종 특구,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업을 허용하는 대구 특구, ▶산업폐기물로 생산된 탄산화물을 건설소재로 재활용하는 충남 특구 등은 규제가 개선되어 신기술·신제품의 상용화 및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④ 기지정 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

그 외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 AI 헬스케어, 전남 직류산업 특구 등 5개 지역 특구사업자 변경이 승인되었다. 강원, 전남 글로벌혁신특구는 각각 21개, 5개 기업이 추가되어 특구사업자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다.

오영주 장관은 “규제의 탄력적 적용과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규제체계 개선 및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규제자유특구 본연의 임무”라고 하면서,

“규제자유특구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종료 이후에도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담당부서	특구혁신기획단	책임자	과 장	윤석배	(044-204-7190)
		담당자	사무관	원미연	(044-204-7204)
	특구정책과		주무관	정승현	(044-204-7209)
		책임자	과 장	류선미	(044-204-7590)
	특구운영과	담당자	사무관	윤상요	(044-204-7205)
		책임자	과 장	유환철	(044-204-7220)
	특구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오미영	(044-204-7222)



참고 1 제1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계획(안)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요

- (목적) 규제자유특구 운영방향, 규제자유특구 지정·변경·해제,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평가 및 규제특례의 부여 등을 의결
- (근거) 「지역특구법」 제77조, 제78조
- (위원구성) 국무총리(위원장), 중기부 장관(간사)·각 부처 장관(당연직 위원*),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민간위원(21인), 총 40인
- * 당연직 위원(17인) : 중기부(간사)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장관 및 금융위원장, 개보위원장, 식약처장, 국조실장

□ 제1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 (안전) ① 특구 운영 효율화 방안 ② 특구 후속조치 계획안 ③ 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④ 특구 지정 변경
- (심의의결 방법·기간) 서면심의, '24.11.15(금) ~ 11.22(금)
- * 재적위원 과반 출석,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서면심의 : 재적위원 과반 찬성)

< 제14차 특구위원회 안전 >

구 분	주요내용
안전 ①	· [의결] 규제자유특구 운영 효율화 방안 - 파급력 있는 특구 기획, 실증지원·글로벌 진출 확대 및 성과 제고
안전 ②	· [의결] '24년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 - 16개 특구 30개 실증사업의 규제해소, 임시허가 전환 및 실증연장
안전 ③	· [의결] '23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평가 - 지정기간 6개월 이상 특구 33개 평가(33개 특구 모두 '보통')
안전 ④	· [보고] 기 지정 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 - 울산, 전북, 강원, 전남, 경북 특구 변경(사업자 변경, 면적 변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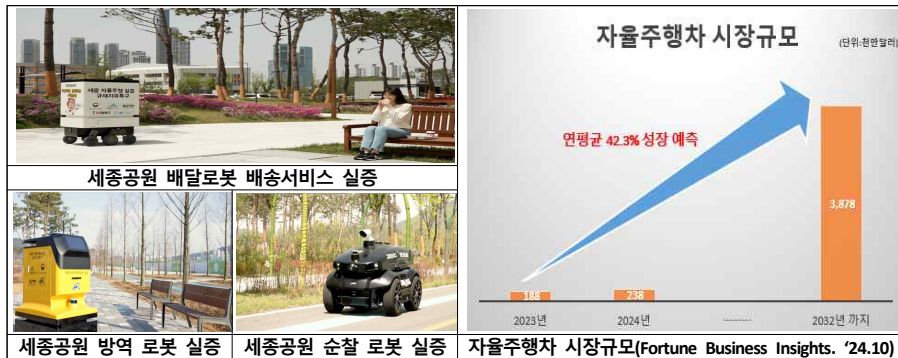
참고 2

「2024년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 사례

Ⅰ 「세종 자율주행 특구」: 자율주행로봇의 도시공원 내 운행 허용

자율주행 로봇은 기술 향상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내에서 진입이 금지되어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왔다. 세종 특구에서는 배달·방역·보안순찰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공원녹지법 시행령」이 개정('24.4.9.)되어, 이제는 도시공원에서 자율주행 로봇의 운행이 가능해졌다.

AI·센서·카메라 등 자율주행을 뒷받침해 주는 첨단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면서 자율주행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3년 18억 8천만 달러에서 2032년까지 387억 8천만 달러로 예측되며 연평균 42.3%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는 자율주행 사업화 완성을 위해 특구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국토부·산업부 등의 후속 연계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관련 지역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Ⅱ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이동식 협동로봇 산업현장 허용

그간 이동식 협동로봇의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작업자의 공간과 분리하거나 안전 펜스를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산업현장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대구 특구에서는 이동식 협동로봇의 효용성과 안전성을 검증

하였고, 이를 토대로 「한국산업표준(KS)」이 제정되어 작업자가 있는 공간에서도 이동식 협동로봇 운행이 가능해졌다('24.11.1).

이동식 협동로봇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3년 3억 8,590만 달러로 추정되고 2030년까지 연평균 23.9%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이번 표준 제정은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기회가 되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시장 선점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Ⅲ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특구 : 산업폐기물로 생산된 탄산화물의 재활용 근거 마련

그동안 정유공장 부산물인 탈황석고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결합하여 생산한 탄산화물은 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이 곤란했다. 충남 특구에서는 탄산화물을 건설소재로 제품화하는 실증을 통한 안전성 검증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4.6.28)되어 재활용 근거가 마련되었다.

탄산화물 활용 건설소재는 대기 오염물질과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향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가격 상승으로 시장이 안정화 될 경우 구축된 산업화 기술을 토대로 기업들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